

## 두 개의 목소리

### \* “물러가라”와 “이거 왜 이래”

지난 2019년 3월 11일 광주법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90세를 코앞에 둔 노인, 게다가 그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했다. 그날 저녁 TV뉴스는 치매 환자인 90세 노인의 광주 방문소식을 메인뉴스로 전했다. 그 모습이 나에겐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이름과 얼굴은 역사 교과서나 역사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마치 ‘연산군’이나 ‘이완용’처럼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어두운 역사의 한 줄을 장식한 과거의 인물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나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 것은 뉴스 화면에 비친 그 다음 장면이었다. 뉴스 카메라는 마침 법원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던 한 초등학교 건물을 비추고 있었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소리로 미루어 고작 초등학교 2~3학년 정도로 느껴지는 앓된 목소리였다.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2019년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인가? 혹시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촬영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 2019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나의 막내 동생뻘 되는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 씨가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여기저기서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졌다.

“5·18 당시 발표명령 부인하십니까?”

불경스러운 질문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내가 보기엔 그는 정말로 그러한 질문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같았다. 평생 자신이 보는 앞에서 감히 심기를 거스를만한 그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겠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90대 치매환자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도 당당하고 기운이 넘쳤다는 점이다.

“이거 왜 이래!”

다음날 또 그 다음 날이 되도록 나의 귓전을 떠나지 않는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광주의 초등학생들이 ‘물러가라!’라고 외쳤던 앓된 목소리와 90대 치매 노인의 노기에 찬 ‘이거 왜 이래!’였다. 두 목소리는 생물학적인 연령의 간격으로 보더라도 3세대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니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어울릴 수 없는 두 목소리가 불협화음이 되어 이명처럼 나의 귓전을 떠나지 않았다.

### \* 나를 일깨운 두 목소리

우리 학교에는 남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오이칠정(五二七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5·27 신흥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선배들이 힘을 모아 세운 정자이다. 5·27 신흥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에 맞서 항거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널리 알리고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참혹한 학살에 항거하기 위해 1980년 5월 27일 우리 학교 선배들이 용감하게 펼쳐 일어났던 운동이다. 5·27 신흥민주화운동은 당시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진 최초의 의거였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오이칠정에 담긴 선배들의 용기와 의지를 배운다. 또한 정문으로 이어지는 희현로는 당시 선배들이 스크럼을 짜고 총검을 든 계엄군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던 길이다. 우리들이 등하교 때마다 오가는 희현로에는 39년 전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저 오래전에 있었던 기록으로만 알고 있을 뿐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한국전쟁 당시 참전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폐교를 단행했던 역사 그리고 전주 지역의 3·1 운동을 이끌었던 대선배들의 이야기도 알고는 있으나 부끄럽게도 나와는 무관하게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일로 치부해왔다.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주체는 시민이며, 스스로 자신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권리를 지킬 때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했다. 또한 맹자는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노예와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분노할 줄도 몰랐던 나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자격 미달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듣게 된 불협화음의 두 목소리는 잠자고 있던 나의 감성을 깨웠다. 광주 초등학교들의 앓던 목소리가 깨우쳐 준 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또한 사람의 목소리가 일깨운 것은 ‘분노’였다. 드디어 나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나에게 시민의식을 깨우쳐 준 것이 학교에서 배운 사회나 윤리 수업이 아니라 철없는 막내 동생 정도로 여기고 있던 초등학생들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한편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90세 치매노인의 목소리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듯 시민으로서의 인식은 지식이 아니라 직관으로, 논리가 아니라 감성으로 깨우쳐 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부끄러움과 분노는 지식과 논리가 아닌 직관과 감성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리라.

### \* 희현로를 걸으며

2019년에도 봄꽃이 교정을 채우고 어김없이 5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봄은 유난히 잔인한 계절이었다. 1948년의 봄은 제주도민들의 피를 요구했고, 1960년의 봄은 학생과 시민의 피를 요구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에 찾아온 봄 역시 광주시민의 피를 원했다. 같은 해 5월 27일은 시민군이 지키고 있던 광주 도청이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유린된 날이다. 바로 그날 우리 학교 교정에서는 선배들이 서로 어깨를 걸고 희현로를 따라 정문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디뎠다. 그날 새벽 광주 시청에서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바로 우리학교 교정에서 벌어질 차례였다. 모두들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 계엄군의 총구에서 불꽃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정문을 통과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만일 선생님들이 목숨을 걸고 행렬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나의 상상은 거기에서 멈춘다. 더 이상을 상상한다면 교정을 가득 채운 봄꽃의 향기가 일순간 너무도 끔찍하고 잔인한 냄새가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희현로를 따라 걸으며 선배들이 디뎠을 발자취를 따라 걸기로 한다. 39년 전 나와 같은 또래였을 선배들은 이 길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도 지금의 나처럼 시험성적과 입시를 걱정하였을 것이고 장래의 진로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터이고 어떤 이는 이성 친구 또는 부모님께 전해줄 편지를 품에 숨기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두려움은 없었을까. 정문 밖으로 뻗어 보이는 계엄군의 총칼을 마주했을 때도 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나는 그들이 남다른 용기를 지니고 있던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알며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믿는다.

#### **\* 새롭게 태어나는 오월**

이제 다시 오월이다. 올해도 광주 망월동에서는 5·18 기념행사가 열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39년 전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릴 것이다. 매년 열리는 행사 때마다 TV 뉴스에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흰 소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나로서는 39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광주 초등학생의 외침이 과거의 기록을 현재로 불러와 부끄러움을 알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 사람의 파렴치한 호통이 39년을 훌쩍 거슬러 분노를 일깨웠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요구한다. 프랑스 혁명이 그러했고 미국의 독립전쟁은 물론 간디가 이끌었던 인도 민중들의 비폭력 운동이 그러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었다. 멀리 일제의 압제에 맞섰던 3·1운동과 한국전쟁에서 치러야 했던 희생 그리고 4·19를 거쳐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흘린 피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룬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박종철, 이한열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고 불과 몇 해 전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희생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희생이 없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누군가에 의해 완성되어져 전해진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희생을 감내하며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피를 요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잠시라도 잊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또다시 우리에게 피를 요구할 것임은 분명하다.

매년 맞는 5월이지만 올해의 5월은 나를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탄생월로 기억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밑바탕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다.